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31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3월 10일 (음력 2월 14일) 화요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만드는 참된 지성인적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불황에 다시 부는 '귀농 바람'

지자체들 각종 혜택에 경쟁 치열

가구당 3천만원 지원 강진 6대1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외환위기 때 급증했다가 주춤했던 귀농바람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이 귀농인 유치를 위해 수천만 원의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귀농인 유치 정책을 내놓아 조건이 좋은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티켓'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들이 책정해 놓은 예산은 적어 정작 밀려드는 귀농인들을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7가구에 불과했던 전남지역 귀농농가는 2006년 249가구로 5배 이상 늘어난 뒤 ▲2007년 257가구 ▲2008년 250가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귀농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각종 혜택 때문이다.

올해도 전남도 내 각 자치단체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귀농 유치 시책을 내놓으면서 귀농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귀농 가구에 3천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해주는 강진군에는 올 들어 벌써 60여 명이 귀농을 신청했다. 상담전화도 매일 30여 통 이상 쇄도하고 있고, 10여 명은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귀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 10가구에 정착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6대1의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올 예산으로 확보한 귀농지원 자금 예산이 3억5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구당 귀농 정착자금 2천만 원과 1인당 100만 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나주시의 경우도 올해 11명이 신청, 이중 심사를 거쳐 3명 만을 선정하기로 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구당 1천400만 원을 보조해주는 곡성군에도 14명이 귀농을 신청했으며, 군은 이중 5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귀농인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모든 가구에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귀농인 간의 위화감 조성과 자치단체 '귀농정책 불신'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무작정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최근에는 '돈은 얼마나 주느냐?' 면서 자금지원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문의전화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농에 앞서 정보수집과 영농경험을 축적하는 등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고 가급적 고향을 귀농지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알림
캣츠(CATS) 한국어 광주 공연

오늘 2차 티켓박스 오픈!! 3월 10일(화) 오후2시
4월 21일(화)~26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北 체류 650명 사실상 억류

한·미 '키 리졸브' 훈련 시작

북, 군 통신선 차단 긴장 고조

북한이 9일 시작한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 육로 통행을 관리하는 군 통신 채널을 끊고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왕래를 차단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자 573명과 금강산 지구 체류자 72명 등 현재 북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650명의 신변 안전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남북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새벽 3시께 낸 성명에서 한·미간의 '키 리졸브' '독수리' 군사훈련 기간(9~20일)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군사적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남북간 "군통신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국군 2만여명과 주한미군 1만2천여명 및 해외주둔 미군 1만4천여명 등 양국군 4만6천여명이 참가하는 '키 리졸브'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 입·출경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할 예정이었던 개성공단 관계자 등 726명의 발이 묶였다.

또 이날 오후 3, 4, 5시 3개 시간대에 걸쳐 귀환할 예정이던 우리 국민 80명도 오후 7시까지 귀환하지 못했다.

북한이 금명간 남측 인사들의 자유로운 귀환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등지의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것은 물론 유사시 억류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등 제반 남북합의에 의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의 출입과 통신이 원만히 보장될 수 있도록 북한이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변호사 개업인사 영입인사 말씀
법무법인 바른길
대표변호사 김용일 올림
법무법인 바른길
대표변호사 문 정 현 올림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조선대 임시이사 재파견후 정상화"

광주 방문 안병만 장관

9일 광주를 방문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선대 정상화와 관련해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주관해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당장 정이사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대와 지역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사 부존재' 문제로 9개월째 표류중인 조선대 정상화에 대해 "이 문제의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사학분쟁위원회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전국 사립대학교 중 조선대가 가장 문제가 없는 만큼 첫 번째로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또 광주지역의 과학영재학교 선정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교육청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다음 기회에는 선정되지 않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